

# 尹 “25조 규모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 5번째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제...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왜 25만원 주나? 10억, 100억씩 줘야지” 이재명 직격 생산성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 규제 혁파...세제도 혁신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13면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을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 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인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게만 지원했던 세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 1인당 25만원만 줘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반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관력 특별조치법)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제의 역동성·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경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

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 이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지역일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어 디자이, 양식당 운영자 등 소상공인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김진수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신나간 여당’ 발언 논란에 대한 여당의 사과 요구와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불러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연합뉴스

## ‘尹대통령 탄핵청원’ 100만명 넘어

### 박찬대 “국정 쇄신 약속 헌신짝처럼 내던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3일 오전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청원은 9월 전인 지난달 24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됐는데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셈이다. 윤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 청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까지 했음

에도 바뀐 것은 없다”며 “국정 쇄신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던져졌고 총리를 포함한 내각 혁신 다짐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만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나과 직적인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

로 회부되고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만큼 소관 상임위의 법제사법위 청원심사소위는 이번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소위는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되었다. 소위에 야당 의원이 다수인 테다 법사위원장 직도 민주당이 맡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진수기자

## 특검법·‘정신나간 여당’ 발언...여야 대치 격화

### 野 김병주 발언 돌출에 대정부질문 파행...채상병특검법 상정 불발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정국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특검법을 관철하려는 야당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이를 막아내려는 여당의 팽팽한 대치 전선이 형성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여당’ 발언이라는 돌발 변수까지 터져 나왔다. 애초 지난 2일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라는 정해진 수순을 밟아가는 듯했다. 대정부질문 종료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이날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면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정부질문 도중 “여기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발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강력한 항의와 함께 사과하라는 여당의 요구에도 김 의원이 이를 거부했고, 과열된 양상 속에 정회된 본회의는 끝내 속개되지 않았다. 이처럼 이날 본회의가 어그러지면서

이제 국회 안팎의 시선은 채상병 특검법이 어떤 처리 절차를 밟게 될지에 쏠리고 있다. 만일 김 의원이 사과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한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3일 상정·4일 처리라는 수순을 밟겠지만 민주당 역시 “사과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의장이야 당 단독 본회의를 열기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론도 동시에 나온다. 결국 우의장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 문금주, ‘옥일기 사용금지법’ 대표발의

### 군국주의 상징물 제작·유포 시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3일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옥일기를 내걸고 차량에 장식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으나 현행 법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옥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넘어 우

리 사회에서 더 이상 군국주의의 상징물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옥외광고물법’의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옥일기 등 군국주의의 상징물이 포함된 광고물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금주 의원은 “옥일기 등 군국주의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징물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우라칸 SH-100	우라칸 SH-200	블리스 GOLD	마스터즈 CH-1500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그립	스파이럴 숫자 특허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